

균형있고 품격 다른 문화예술 실현

소리문화전당 을 주요업무계획

공연·클래식 등 기초예술장르 통해 섹션 프로그램 브랜드화

전시·테마·시즌·특별전 마련

예술교육·아트숍합대 등 전 연령대 걸쳐 교육 실시키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전성진)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당은 올해 비전을 '균형 있고 다채롭게 펼쳐지는 품격이 다른 문화예술'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마음과 신뢰를 주는 기획 프로그램'을 위한 적극적 공간운영,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분격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음과 신뢰를 주는 기획 프로그램 공연의 경우 클래식과 연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이를 전당만의 섹션 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악적 성과와 예술성에 초점을 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8년 기획공연 시즌 KoSAC 2018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리문화전당 을 기획공연 시즌 로고.

'거장전'은 조수미 콘서트 One Night in Paris(9월)와 뉴욕필하모니 스트링 콰르텟(10월)을, 대중성과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지 워더'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3월)와 뮤지컬 '갈라쇼' '염유민 법·염기준·유준상·민영기·김법래(10월)을, 트렌드를 선도하는 숨겨진 아티스트를 찾아내는 '기획자의 눈·클래식 시리즈'는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을 시작으로 용재오닐&임동혁 듀오 리사이틀(6월)을 선보인다. 다양성 음악 시리즈 '아트스테이지 소리' 무대에선 문문(3월)·슈가볼(4월)·서사무엘(5월)이 공연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전시 전시는 예술성에 바탕을 두고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테마전시', 방학 시즌을 맞아 관람·체험·교육을 병행하는 '시즌전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전시'가 마련된다. 지역의 청년 작가(청년작가 공간 기획전 4~5월·10~11월) 및 중견작가(중견작가 초대전-송만규 화백 3월)를 선정해 진행되는 테마전시와 인기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전·행복한 미술관(7~8월)'을 시즌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얼수·소리랑 놀아보자(유아)', '예술놀이터 SORI(초등학생)', '아트숍합대(청소년)', '마리첼(청소년)', '응답하라 청춘시대(시니어)' 등으로 구성해 전 연령대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지역 주요 예술기관 파트너십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지역예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 공간 운영 전당은 지역의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파트너십도 발휘한다. 이를 위해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 잡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무대제작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국청소년연극제', '전북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2018 전국문화관 아카데미'를 유치해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본격 운영 '전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는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리전당이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창작 컨설팅 및 멘토링을 강화해 음악콘텐츠 생산과 뮤지션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음반제작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공간 개소식이 예정돼 있으며, 공간은 전당 입구 분수대 아래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된다. /정해은 기자

5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브랜드 대상 수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축제 위상 높여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제7회 2018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 공공행정 지역축제 부문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매년 금융·가전·유통·패션·통신·교육·문화·식품·의료 프랜차이즈·공공행정 축제 등 각 부문별 기초조사를 통해 후보브랜드를 선정하고, 소비자 리서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소리축제는 지난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새로운 공연 공간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공간 구성의 밀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야외 특설무대인 '음악의집'을 보기 드문 월드뮤직과 전통공연,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음악의 콜라베이션 등 소리축제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성취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유수의 음악축제 감독들과의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위한 교류보를 마련하면서 소리축제는 물론 한국음악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얻었다. 시상식은 2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진행됐으며 박재천 집행위원장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5년 연속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관객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적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과 동시에 대중의 호감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0월 3일~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시·군에서 펼쳐진다. '소리판타지'를 주제로 판과 소리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회복을 다룰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올 무주산골영화제 6월 21~25일 열린다

무주예체문화관 등 군 일원서 한국장편영화경쟁 '창' 섹션 작품 공모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드디어 올해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2013년 제1회 개막을 시작으로, 자연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한 독보적 콘셉트의 낭만 영화제로서 지난 5년간 큰 사랑을 받아왔다. 2018년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무주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쁜 일상 속 특별한 휴식과 여행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즘, 휴양과 영화를 접목한 영화축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도 무주의 초록 숲에서 다채로운 영화들과

풍부한 공연 이벤트를 마련해 국내외 관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다. 한편,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부문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이 돋보인 한국 영화를 매년 소개해 온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의 작품 공모도 시작했다. 출품작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3월 2일까지이며, 2017년 8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60분 이상의 한국 장편 영화는 장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한국장편영화경쟁 '창' 섹션에서는, 업선된 9편 내외의 작품을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 상영하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국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보여준 작품들을 선정하여 뉴비전상, 전북영화비평포럼상, 무주관객상과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년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박석영 감독의 '재꽃'과 정운석 감독의

남섬해적단 서울불바다'가 뉴비전상을 공동수상했으며, 손태경 감독의 '아기와 나'가 전북영화비평포럼상을, 이번주 국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는 김일란, 이혁상 감독의 '공동정범'이 무주관객상을 수상했다. 과연 2018년 한국장편영화경쟁 '창' 섹션의 주인공은 어떤 작품들이 될지 기대되는 가운데,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한국영화의 밝은 미래를 조망 할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기다린다. 출품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mjff.or.kr)를 참고하거나,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063-220-8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립박물관 인문토크쇼

정읍시립박물관이 정읍의 정점 문화이슈를 주제로 '인문토크쇼'를 운영한다. 시립박물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학예연구사가 참여하는 '인문토크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사와 교육생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토크쇼는 모두 10개 강의로 진행된다. 강좌에서는 전북의 강인 동진강과 만경강, 그리고 정읍 선사시대의 서민문화와 엘리트문화, 백제가요 정읍사와 신라가요, 조선문화 정읍가사와 담양가사 등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가 다른 문화와 어떻게 다르며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각 주제마다 최원규 원광대학교 교수, 이재운 전주대학교 교수, 한수영 호남문화재연구원 팀장, 유종국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대학생 이상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매주 토요일 '자체발광 빛축제' 첫마중길에 사람·문화로 '가득'

전주시,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역 예술가들 공연 설 귀성객 위해 역전 광장에 '웰컴투 전주 마중등' 내걸어 소원지 쓰기 체험 등 시민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진행 내달 3일부터 3월 3일까지 '2333착한 플라마켓' 열려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겨우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할 빛의 거리로 탈바꿈된 가운데 매주 토요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나무가 생육을 시작하는 오는 3월 초까지 첫마중길 특설 무대에서 매주 토요일 전주의 첫인상인 첫마중길을 사람과 문화로 가득 채울 '자체발광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첫마중길 콘서트 존에서는 재즈밴드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 버스킹 공연 등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첫마중길 빛의 거리를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특히 첫마중길과 미추한 전주역 광장에는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과 설 명절 귀성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웰컴투 전주 마중등'이 내걸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마중길 빛의 거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소원지 쓰기 체험, 자체발광 인생샷 남기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전주시역 수공예작가들이 참여하는 '2333착한 플라마켓(Flea market)'이 열릴 예정이어서 첫마중길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겨울철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첫마중길 광장 내 느티나무 150주와 상징고목 2주에 LED 조명을 이용해 트리조명을 설치하고 전체 850m에 달하는 빛의 거리 각 구간마다 빛의 터널과 곱들이 조명, 별자리 조명 등을 설치한 빛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장은 "첫 마중길이 차량중심의 거리에서 사람중심의 거리로 탈바꿈 후 전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빛의 거리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로 천만 관광도시 전주시가 사람중심·문화중심의 명품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